



Double, oil on canvas, 135x165cm, 2016



심장과 미래의 저하, Heart and falling of future, pine trees and clay mixed with oil, variable size, 2016



심장과 미래의 저하_Heart and falling of future, oil on canvas,
150x200cm, 2016



심장과 미래의 저하_Heart and falling of future, object, oil on canvas, variable size,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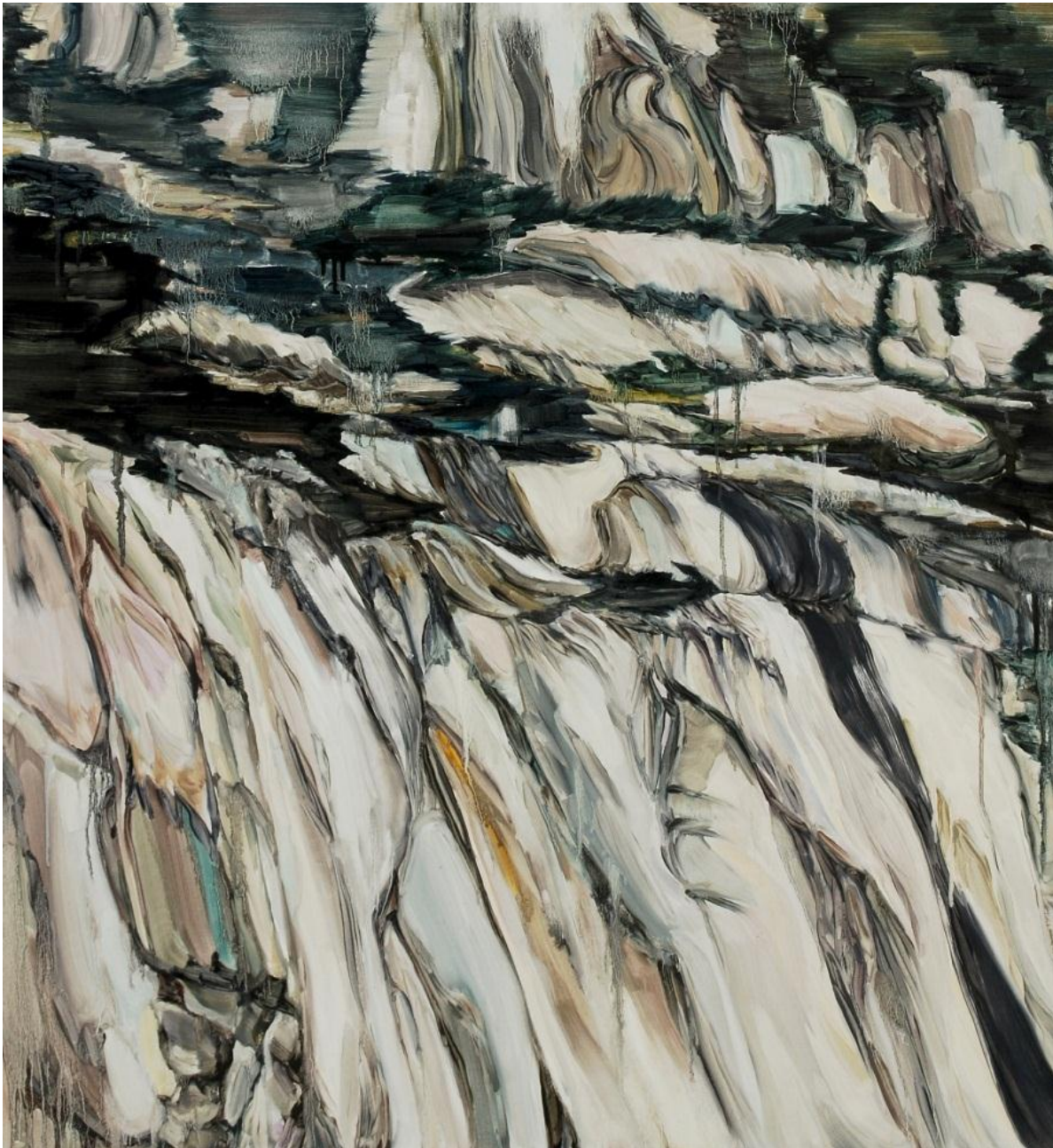
굴_Oyster, oil on canvas, 53x33.5cm, 2016



Double, oil on canvas, 130x173cm, 2016



북한산_Mountain, oil on canvas, 140x155cm,
2016



바위산_Rock mountain, oil on canvas,
110x120cm, 2016



실수들_ Errors, computer's error image and weave a carpet, 138x200cm, 2015

: 노후 된 컴퓨터의 에러이미지를 카펫트로 제작하였다. 곧 중지될 기계가 남긴 흔적이 다시 기계로 조작되어 하나의 재현으로 제작되고, 그 재현은 작품으로서 관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직물로서 휴식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집에 가고 싶지만, 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_ I often felt want going the home. But, I don't know the home is where.,
wood, cushions, cloth, a lamp, books, papers, pencils, variable, 2011
: 가족들의 채취가 베인 베개와 본인 책상 위에 놓인 물품들을, 닫혀있고 열려있고, 열려있는 듯 닫혀있는 듯한 오각형 구조에 넣어 두었다.



알약_Pill, oil on canvas, 30x30cm,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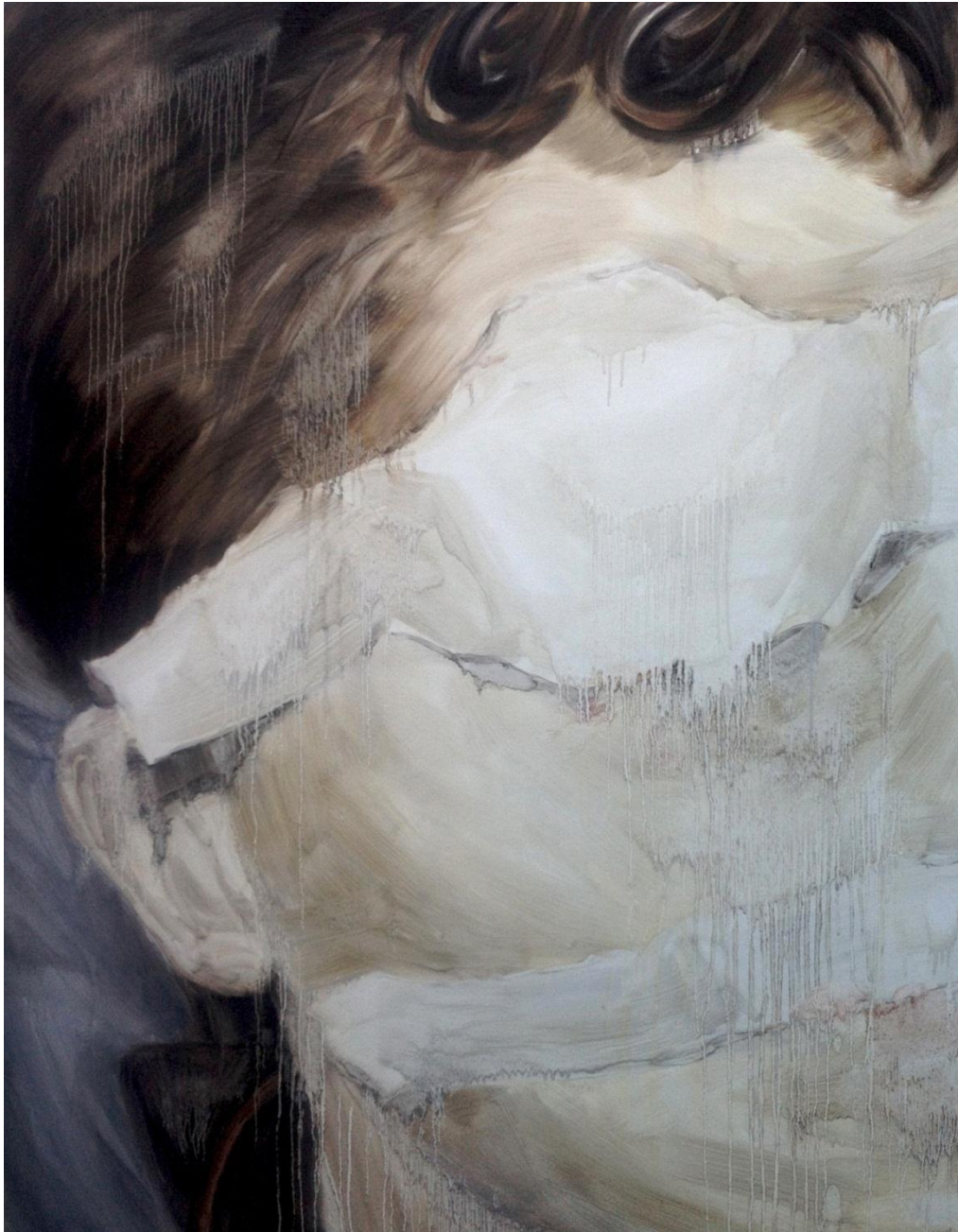


품어줄 자리_The places will embrace, single channel, 00:08:50, 2016



소리 없는 다툼_Silent Struggle, bricks plant vinyl wrapper A4 print, size variable, 2015

: 죽은 비둘기를 사진으로 남겨 놓았고, 그 사진을 프린트기의 잉크가 다 소진될 때까지 인쇄 하였다. 작은 균열이 천천히 여러 틈을 만들다가 결국 무너진다. 다시 쌓아올 릴 테지만 예전과 일치하는 부분만큼이나 벗어나는 부분도 또렷해진 채 올려질 것 이다.



약한 힘_Weak Force, oil on canvas, 90x116cm, 2015



약한 힘_Weak force, oil on canvas, 2015



Untitled, oil on canvas, 45x53cm, 2014



이동은 이미 오염되었다_Move already has been contamination, color pencil and oil on canvas, 120x80cm, 2014



left) 배제되어 생각되지 못한 것들_Nothing, print on ground wood paper (size A1 4 pages), wood, size variable, 2015

:노후 된 컴퓨터의 에러이미지를 프린트한 작업이다. 쉽게 찢어질 수 있고, 쉽게 구겨질 수 있는 얇은 갠지에 프린트 하였다, 애러가 남긴 추상적인 이미지는 순간에서 기록으로 남겨졌다.

right) 가시를 빼는 소년소녀_Spinario Cavaspina, oil on canvas, 92x120cm, 2015

1 균형잡을수가없는걸요 모든것이변하지않는고향
 내려놓을수없는공간 무거운책한권
 무거운얼굴하나 이해할수있는냄새
 이동시켜줄기차 바구니에담긴아기
 손에는몰이되어흐르는 10마치사랑해요
 마치무거워요 이중성의믿음
 이중성의무거움 비린내그리고구토
 이중성의가벼움 이중성의불신
 마치가벼워요 마치증오해요
 예정된침략 20겹치는얼굴
 총을쏘는카메라 죽어가는사진
 늦출수없는매혹적인것 무덤속의사진
 가슴에영사되는상 다시금다시
 이동하는고향 빵과장미
 씹지않는입과보지않는눈 30이미벌거벗은눈
 가벼움과무거움 겹치는거울
 비린내와비린내 오물과호수
 소화와찌꺼기 흠위에고단한풍경
 어찌할수없는노스텔지어 땀흘리는사용가치
 땀흘리는교감 40잇어가는마음
 연약한평온한하루 그날깨달은
 동그스름한생명 애정어린모습전체
 차가운자연 흠위에서흐르는땀
 동정어린그것이더익숙한 축제전야제
 첫날밤
 50첫죽음



테레사,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_Teresa and continued today, print on groundwood paper (size A4 50 pages), wood, size variable, 2015
 : 밀란 쿤테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등장인물 중 테레사만을 향한 글읽기를 하였다. 컴퓨터의 에러이미지를 잉크가 다 소진될 때 까지 반복적으로 인쇄하여, 그 위에 그녀를 향한 글을 적어 놓았다.



위) 새_Bird, oil on canvas, 27x22cm, 2015

아래) 마치 사랑해요_Maybe like love, object, size variable, 2015



얼굴 없는_Faceless, mildew on wood, 30x45cm, 2014

Faceless, fabric on wood, 30x30cm, 2015

Faceless, fabric on wood, 30x30cm, 2015

: 밀가루 반죽이 남긴 흔적, 때가 탄 수건, 버려진 쿠션. 그들의 이름과 용도를 지우고 흔적만이 남은 관조의 대상으로 남는다.



마치 사랑해요_Maybe like love, honey and sponge, 35x60x14.5cm, 2015

: 물을 항상 흡수하는 스펀지에게 꿀을 잔뜩 발라 놓았더니 흡수하지도, 썩지도 않은 채 표면만 달아있을 뿐이었다.



손의 대화, 종이 위에 콜라주 드로잉, each 14x20.5cm, 2015

손의 대화_Conversation of hand, 광목 위에 프린팅, 140x250cm, 2015
: '빌린가게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품이다. 작업장과 판매장을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던 그곳 기존의 커튼을 손에서 사물로, 사물에서 손으로 교감을 이뤄내는 창구로서의 커튼 역할을 얘기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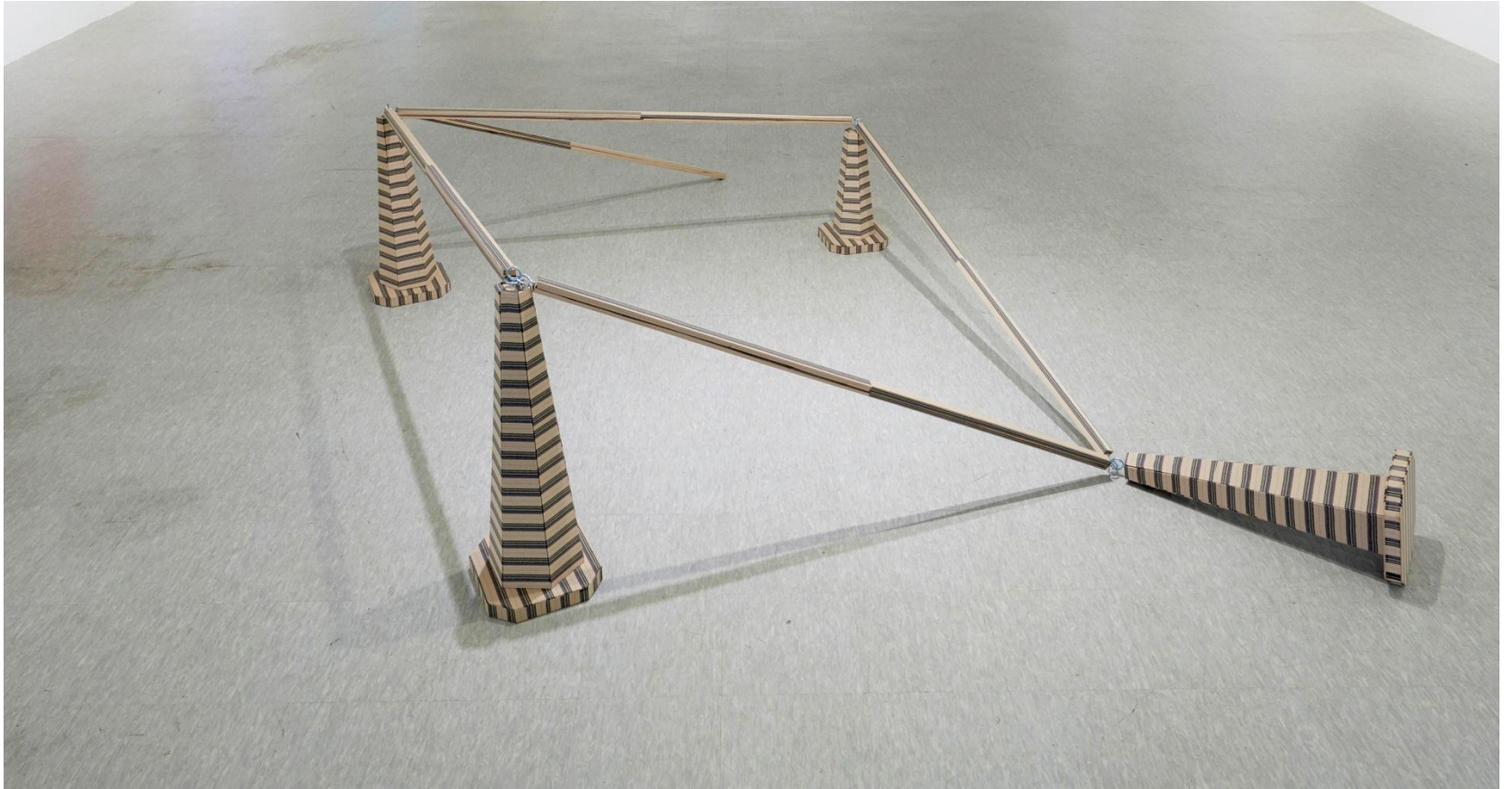
Double, oil on canvas, 53x41cm, 2016



Double, oil on canvas, 27x45cm, 2014



Double, oil on canvas, 32x40cm, 2016



손님_ Caller, oil on canvas, printing on fabric and wood, variable size, 2016



이름 없는_Nameless, cement, object, fluorescent light, variable size , 2016 (협업 이종희)

이사를 준비하며 버릴 물건들을 따로 치워 놓았다. 그것들을 한데 모아 놓고 바라보다가 그들을 위한 관을 짜주고 싶었다. 나무로 그들 형태에 딱 맞는 틀을 짰고. 그 틀에 그들 하나 하나를 넣었으며, 시멘트를 부어 굳게 하였다. 한발 나와 그것들을 바라보니 애도가 아닌 폭력을 행사 한 게 보였다.



이름 없는_Nameless, cement, object, fluorescent light, variable size , 2016



새_Bird, oil on canvas, 27x22cm, 2015